

한국어 교육용 시사 한자에 관한 기초 연구

송금숙

Abstract

Song Keumsook. 2014. 2. 28. **A Preliminary Study on Sino-Korean Words for Current Events in Korean Education.** *Bilingual Research* 54, 217-238.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mmediate need for teaching Sino-Korean in Korean classes and then to suggest a teaching plan, along with a Sino-Korean words list for the plan. Research of Sino-Korean for teaching Korean has been continuously and briskly conducted since the 1970s. However, most of the aims of such studies simply focus on Sino-Korean vocabulary build up, disregarding direct Sino-Korean learning. In fact, when it comes to the fact that certain Sino-Korean words are still frequently used today, it would be a meaningful research to compile and teach everyday Sino-Korean words. Especially, Sino-Korean is important in news articles. Although there is the Korean notation rule for the Chinese character, some frequently used words, particularly in headlines, are still written in the Chinese character; if readers do not know the Chinese character, they would have limitation in understanding the news articles. Also, such Chinese characters are, in some cases, abbreviations which might not be understandable unless the readers have some knowledge about Korean current events. This study, thus, selects a list of Sino-Korean words that can be found in news articles through an objective analysis and presents the meanings of the words and frequent lexical areas in the list to help learners understand news articles about Korean current events. **(Korea University)**

【Key words】 한자 교육(Sino-Korean teaching), 기본 한자(fundamental Sino-Korean words), 시사 한자(Sino-Korean words for current events), 신문기사 헤드라인(news article headlines), 축약형 한자(abbreviated Sino-Korean words)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 교육에서 시사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이때 가르쳐야 할 기본 시사 한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이에 따른 한자 목록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 한국어의 어휘 중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으며 실생활에서도 한자어 사용 비중이 적지 않다.¹⁾ 또한 한국어 교육의 초창기부터 한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한자만을 별도로 가르치는 한자 교재의 개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한자반 개설 등 실제적인 한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²⁾ 이때의 한자 교육의 목표는 한자 학습을 통해 한자어 이해력을 높이고 한자어 어휘 확장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한자 자체가 학습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학습을 함으로써 언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부차적 목표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휘력 확장을 위한 한자 학습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자 자체가 의사소통적 목표 어휘가 되어야 함을 밝힌 연구는 다소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정남(2005:402)에서도 밝혔듯이 한글 전용이 거의 정착 단계에 있는 현실에서도 간판, 사찰, 결혼식장, 조문 장소 등에서 여전히 한자가 사용되고 있으며 몇몇 언론 매체에서는 아직도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 명사 표기에서 한자 표기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급 단

1) 표준국어대사전의 통계상 고유어는 25.2%, 한자어는 57.3%, 외래어가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심재기 외 2011: 56), 실제 언어생활에서 한자어 사용은 66.3%, 고유어 영역은 26.1%, 외래어는 4.0%로 나타났다(허철 2010:221).

2) 이영희(2008:4)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을 위한 한자 교재가 18종 20권이나 개발되었으며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어휘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자반을 개설하고 있고, 해외 대학의 한국어과에서 한자 교육이 전공 필수로 개설되어 있다고 한다.

계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자가 병기된 텍스트를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기도 하며,³⁾ 이 중 일부 한자는 한국 사회 이해를 기반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 학습자 스스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이에 능동적인 언어 사용을 위해서는 아닐지라도 수용적인 언어 이해의 측면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학습해야 할 한자 어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한자 목록에 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시사 뉴스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자 목록에 국한하여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간판이나 사찰 이름, 결혼식장 등에서 찾을 수 있는 한자는 그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 자주 접하는 상황이라 보기 어려우며 많은 부분이 한글 전용 표기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언론 매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신문 기사나 뉴스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는 한국어 고급 이해 능력에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하겠다.⁴⁾

이에 본고에서는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한자를 ‘기본 시사 한자’⁵⁾로

- 3)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는 국한문이 함께 쓰인 텍스트를 찾기 어려운데, 이는 실제 언어 자료를 반영했다기보다 자료 선택이나 자료 제작 시 국문으로 된 텍스트 위주로 선정하거나 노출된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개작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 4)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4급의 언어 수행 능력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에서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신문의 헤드라인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급 후반부의 학습자에게 필수적인 기능이라 볼 수 있겠다.
- 5) 기초 어휘(basic vocabulary)와 기본 어휘(fundamental vocabulary)를 구분하여 사용할 때, 기초 어휘는 일상 언어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어 1천 개 내지 2천 개를 최소한으로 선정한 뒤, 이를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체계를 말한다. 이는 통상 초보적인 단계의 외국어 학습자 및 여행자 등을 위하여

명명하고, 한국어 교육용 시사 한자의 선정 기준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 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 교육에 관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한자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함을 제안한 연구이다(장석진, 1974; 손연자, 1984; 김정숙, 1992 등). 둘째로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자 및 한자어 교육에 관한 요구 분석 및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이다(고영근, 1974; 김중섭, 1997; 문금현, 2003; 방혜숙, 2007; 이영희, 2008; 유홍주, 2008 등). 다음으로 한국어 어휘 이해력을 높이고 어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한자 목록을 선정하고 이를 교수하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이다(정승혜, 1987; 최주열, 1994; 강현화, 2001; 김지형, 2003a; 한재영, 2003; 문금현, 2003; 이영희, 2007a; 김성중, 2013 등). 마지막으로 한자권 언어와 대조 분석하여 음과 뜻에 차이를 보이는 한자어에 대한 조사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마키노 미키, 2012; 김유정, 2013 등).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자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연구 대상과 방법에 차이를 보이고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정되는 것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와 구별되는 기본 어휘는 언어 사용의 국면이 다양한 여러 영역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영역의 전개를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의 집합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기본 어휘란 특정한 목적, 특정한 분야를 위한 ‘OO 기본 어휘’라는 식의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기본 어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고빈도어를 조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김광해, 1993:47, 55). 본고에서 사용하는 ‘기본 시사 한자’는 시사 뉴스에 등장하는 기본 한자 어휘로서 이하 논문에서는 ‘시사 한자’로 통일하겠다.

있다. 손연자(1984:84)에 따르면 우선적인 한자 학습 목적은 한국어 독해력 향상을 위한 한자 해독이며, 두 번째 목적은 한자의 자원적(字源的) 분석과 조어 원리를 통하여 한자어에 대한 이해와 적용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였다. 두 가지 목표 중 후자에 관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때 다루어야 할 한자 목록 선정 기준에도 어휘력 확장에 도움이 되는 한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전자에 대한 논의는 한자 교육 연구 초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자 해독을 위한 한자 목록과 한자어 어휘력 확장을 위한 한자 목록이 섞여 제시되고 있어 실제 목표에 맞는 한자 목록을 명확히 구분한 경우가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 어휘력 향상을 위한 부수적인 한자 교육이 아닌, 의사소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자 학습이 목표인 만큼 첫 번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언어 환경에서 빈번히 노출되는 한자를 이해하기 위해 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한 연구로 장석진(1974), 손연자(1984), 김정숙(1992), 장일결(2013)을 들 수 있다.

먼저 장석진(1974:75)에서는 전문 서적, 학술지뿐 아니라 신문, 잡지, 간판 등에서 한자 사용이 폐기되지 않는 한 설정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한자 학습은 불가피하며 교재에도 한자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자 학습은 중급 과정에서 시작하는 게 적절하며 읽어 뜻을 아는 것에 목표를 두고 불필요한 학습 부담은 주지 않

6) 어휘력 확장을 목표로 하는 한자 교육에서 제시되는 한자 선정 기준으로는 (1)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 (2) 사용 범위가 넓은 한자, (3) 교육에 기초적인 한자(외국인 교육용 기본 어휘에 포함된 한자어를 구성할 수 있는 한자), (4) 조어력이 높은 한자, (5) 한국어 한자 교재 또는 한국어 교재의 기본 어휘를 나타낼 수 있는 한자, (6) 기초 한자에 포함된 한자와 일정한 계열 관계를 이루는 한자 등이다. (정승혜, 1998; 강현화, 2001; 김지형, 2003a; 문금현, 2003; 이영희, 2007a 참고)

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손연자(1984)에서는 한자 교육의 목표 두 가지를 밝히고 있고 이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중학교용 기초 한자 900자와 고등학교용 900자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간판 속 한자와 신문의 사회면, 정치면에 나타난 한자를 고려하여 한자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통용되는 한자 목록을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 고유의 한국어 학습자용 한자 목록이라 보기 어려우며 간판과 신문에 나타난 한자를 조사한 후 이를 한자어 확장용 어휘로 재배치한다는 점에서 한자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정숙(1992)에서는 한자 교육에 있어서 목표를 국한문이 혼용되는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이나 안내문 등을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한자권 학습자와 비한자권 학습자의 한자 교육을 구분하여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자 자체를 교수 목표로 하였으나 이를 위한 한자 목록 선정에서는 기초 한자 1800자 중 중학교 학생용 900자 정도를 학습하면 될 것이라 하여 한국어 학습자용 한자 목록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의 연구인 장일결(2013)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생활용 기초 한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노출 빈도수가 가장 높은 한자를 수집한 후 교육용 기초 한자 목록과 대조한 한자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자 목록 52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광고, 간판, 신문, 포스터, 상표, 명함, 만화, 안내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찾은 내용이다. 실제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분석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가르치고자 하는 한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한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연구 목표에 부합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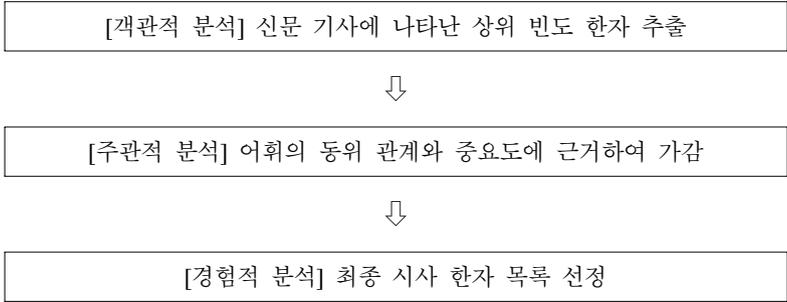
못하거나 제시 범위와 빈도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이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한자 목록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근거한 한자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한국어 교육용 시사 한자 선정

어휘 선정의 방법은 객관적 방법, 주관적 방법, 경험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김광해(1993:60~62)에 따르면 객관적 방법은 어휘 선정의 기준을 전적으로 통계 수치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어휘 자료에 나타난 빈도를 조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어휘소의 단위를 구분하는 방법과 분류 방법만 일치시키면 누가 조사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객관적 방법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방법만으로 어휘를 선정할 경우 중요하지 않은 어휘가 고빈도 광범위 어휘에 속하는가 하면, 중요한 어휘가 빈도가 낮거나 특정 분야에만 쓰이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이충우, 2006:92~93). 이에 어휘 선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를 두고 특정한 목적에 부응하는 어휘를 선정하는 것이 주관적 방법이다. 최근에는 이 양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선정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충식 방법인 경험적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절충식 방법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는 일차적으로는 객관적 분석에 따라 상위 빈도와 광범위한 사용 범위를 갖고 있는 단어 중심으로 어휘를 선정하고, 선정된 한자 목록 중 한국어 교육에 가치가 있는 어휘가 빠지는지 또는 불필요한 어휘가 포함되는지 않았는지 선정자의 주관에 따라 가감하는 이차적 절차를 가졌다. 이때에는 선정 한자가 주로 사용되는 언어 영역과 언어의 난이도를 고루 평가하였다. 두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한국어 교육용 시사 한자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선정 절차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시사 한자 선정 절차

3.1. 선정 방법

먼저,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상위 빈도를 차지하는 한자 목록을 추출하였다.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텍스트로는 신문, 잡지, 텔레비전 뉴스 등이 있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시사 한자에 대한 기초 조사 성격으로 신문 기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⁷⁾

7) 사용 빈도 면에서는 신문 기사가 텔레비전 뉴스보다 한자 사용이 훨씬 잦지만, 상위 빈도 목록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는 2013년 11월 1일자 신문 기사 헤드라인과 텔레비전 뉴스 자막에 등장하는 한자의 상위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신문 기사와 텔레비전 뉴스 상의 상위 빈도 한자 비교

순위	신문 기사		텔레비전 뉴스	
	한자	빈도	한자	빈도
1	美(미)	89	日(일)	16
2	中(중)	77	中(중)	14
3	日(일)	67	北(북)	14
4	北(북)	61	美(미)	11
5	朴(박)	35	亞(아)	6
6	前(전)	29	野(야)	5

이를 위해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크고 실제 독자가 많은 신문을 알아 보았다. 전국 종합 일간지 중 유료 부수가 많은 상위 5개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로 나타났다.⁸⁾ 이 중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경제 전문지인 만큼 신문의 대표성을 갖기 어려워 제외하였고 <중앙일보> 또한 한자 사용이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일간지를 대상으로 실제 한자 사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비교의 객관성을 위해 동일자(2013년 11월 1일) 신문에 쓰인 한자를 추출한 결과 <조선일보>는 총 33 단어, <동아일보>는 총 29 단어로 조사되었다. 이 단어 중 두 신문에 동일하게 제시된 단어는 11개로 이 한자는 진한 글씨로 표시하였다. <조선일보>에 실린 한자 목록은 아래와 같다.

軍	內	黨	大	代	大檢	渡江
無罪	文	美	朴	發	寶庫	北韓
選	說	市	失機	安	野	與
原電	有罪	銀	李	日	前	政爭
中	車庫	靑	派獨	韓		(총 33개)

<동아일보>에 실린 한자 목록은 아래와 같다.

7	韓(한)	17	興(여)	4
8	車(차)	16	韓(한)	2
9	英(영)	15	檢(검)	2
10	檢(검)	15	軍(군)	2

- 8) ‘발행 부수’와 달리 실제로 독자에게 판매한 일간지 ‘유료 부수’ 현황을 보면 <조선일보>가 139만2,547부로 가장 많고 <중앙일보> 98만3,049부, <동아일보> 86만6,666부 <매일경제> 62만1,974부 <한국경제> 39만4,340부였다. 또, <한겨레>는 22만5,102부 <한국일보> 20만3,752부 <경향신문> 20만158부로 나타났다. (2012.1.6. 평화신문. 한국 ABC협회가 처음으로 공개한 결과임.)

高	官	大	大檢	東進	名家	美
民	朴	百	北	時代	安	野
英	銀	日	前	中	中企	車
靑						(총 29개)

제시된 목록을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보다 한자 사용이 많았으며, 또 다른 특징으로 渡江(도강), 失機(실기), 派獨(파독) 등과 같이 난이도가 높은 단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⁹⁾ 이러한 단어들은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로 보기 어렵고 단어의 사용 범위가 넓지 않은 단어들로 학습 목표 한자라 하기 어렵다.¹⁰⁾ 따라서 좀 더 보편적인 한자 사용이 나타나는 <동아일보>를 선택해 실제적인 한자 사용 빈도를 분석해 보았다.

기사 분석은 동아일보 2013년 11월 1일자부터 3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총 26일간의 신문 기사를 다루었으며 이 중 광고를 제외한 4,135개의 기사를 대상으로 했다. 일일 기사 수는 평균 159개이며 이 중 한자가 병기된 기사 수는 평균 22개이다.¹¹⁾ 동일 기사에 반복 등장하는 한자는 일 회로 처리했으며, 다른 기사에 나오는 동일 한자는 개별적으로 숫자를 세었다. 대부분의 한자가 단음절로 제시되고 있지만 2음절 이상의 한자나 사자성어가 제시되기도 하는데¹²⁾ 본고에서는 합성어가 아닌 단

9) 진태하(1995:46~47)에 따르면 국한문 혼용 신문을 발간하는 이유로 신문의 제한된 공간의 체제미를 의식하여 표제와 부제를 최대한으로 압축하여 뽑는데 있어서는 표의문자인 한자의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문에 사용되는 한자의 사용 범위와 체제 등의 객관적인 기준이나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기사 작성자나 표제 선정자 등의 즉흥적이고 수의적인 감각에 의해 쓰이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10) 조남호(2002)의 빈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渡江, 失機는 1회 등장하였고, 派獨은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등 빈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11) 2013년 11월 한 달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사 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균 176개의 기사가 실렸으며, 토요일판은 평균 90개의 기사가 실렸다.

12) 분석 대상 기사 중 나타난 2음절 이상의 한자로는 女高(여고), 雪國(설국),

일어로 분석 대상을 좁혔고 대부분의 단어가 단음절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이는 단음절로 된 단일어 한자는 지칭 대상이 동일할 경우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합성어나 사자성어는 자의적으로 한자 사용이 나타나며 사용 범위가 특수한 상황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에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2. 선정 결과

신문 기사 헤드라인에 나타난 단일어 한자는 총 104개였다. 분석 결과가 가장 많이 쓰인 한자는 ‘美(미)’로 나타났으며 총 89회로 1일 평균 3회 정도 노출되었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中(중)’, ‘日(일)’, ‘北(북)’의 순이었다.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정치상 관련이 깊은 국가명이 상위 빈도를 차지하였고 위의 단어들은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을 간략히 표기한 약자로 신문 헤드라인에서는 원단어보다 훨씬 자주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한자는 한국의 성씨 ‘朴(박)’이었다. 이 외에도 순위는 낮지만 ‘盧(노)’, ‘金(김)’, ‘鄭(정)’ 등의 성씨가 한자로 표기되었다. 이들 성씨들은 시대에 따라, 기사에 따라 같은 한자가 다른 인물로 해석될 수 있어 한자 교육 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많이 등장한 한자는 ‘前(전)’이며 ‘이전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인사 동정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사회면에 자주 등장한다. 일곱 번째 단어는 ‘韓(한)’, 여덟 번째로 많이 나타난 단어는 ‘車(차)’로 ‘자동차’ 또는 ‘자동차 회사’의 약자로 경제면에서 자주 쓰였다. ‘현대車, 삼성車’ 식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이름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아홉 번째 단어는 ‘영국’의 약자인 ‘英(영)’과 ‘검찰’을 나타내는 ‘檢(검)’이 각각 15회로 나타

寶庫(보고) 등이 있고, 사자성어로는 自重自愛(자중자애), 夫唱婦隨(부창부수) 등이 있다.

났다.

다음으로 정치와 관련된 단어들도 한자 표기가 많았는데 ‘靑(청)’은 ‘청와대’의 약자로 쓰이며, ‘행정부’ 또는 ‘대통령의 의견’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어 여당을 나타내는 ‘興(여)’, 야당을 의미하는 ‘野(야)’가 자주 쓰였으며 다음으로 ‘銀(은)’은 ‘은행’의 약자로 쓰이거나 간혹 스포츠 영역에서 ‘은메달’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자’의 약자인 ‘女(여)’도 총 11회 등장으로 ‘銀(은)’과 함께 빈도 순위 14위를 차지했다. 이어 ‘군대’를 나타내는 ‘軍(군)’, ‘프랑스’를 나타내는 ‘佛(불)’, 그리고 ‘새롭다’는 의미의 ‘新(신)’이 공동 16위를 차지했다. ‘新(신)’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정책, 제도, 신기록’ 등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면에서 고루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시아’를 나타내는 ‘亞(아)’ 성씨 ‘盧(노)’ 그리고 ‘독일’을 나타내는 ‘獨(독)’, ‘金(김)’, ‘大(대)’가 공동 21위를 차지했다. ‘金’은 성씨 ‘김’으로 쓰이는 경우와 ‘금메달, 금값’ 등 ‘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동일한 횟수로 나타났다. ‘大’도 ‘대학’을 의미하는 경우와 ‘세계 10대 상품’ 등과 같이 순위를 나타내는 경우로 나뉘어 쓰이고 있다. 다음으로 ‘수자원공사’ 등을 나타내는 ‘公(공)’, ‘중소기업’의 약자 ‘中企(중기)’, ‘중국發 황사’ 등의 표현에서 찾을 수 있는 ‘發(발)’이 6회로 24위를 차지했다. 이어 5회를 기록한 ‘故(고)’는 ‘고인(故人)’의 의미로 쓰여 사회면에 주로 나타났고, ‘일 년’을 의미하는 ‘年(년)’도 같은 횟수로 27위를 차지했다. 이어 4회 제시된 한자로는 성씨 ‘鄭(정)’, ‘한이 많다’ 등에서 쓰이는 ‘恨(한)’, ‘중공업 회사’의 약자로 쓰인 ‘重(중)’, ‘상을 받다’의 ‘賞(상)’, 연구소의 ‘研(연)’이 있다.

4회 이상 제시된 한자는 총 32개로 이를 빈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신문 기사에 나타난 상위 빈도 한자 목록

	한자	의미	빈도	종합	국제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과학	건강
1	美(미)	미국	89	27	27	14	15	4	2		
2	中(중)	중국	77	27	24	12	12	2			
3	日(일)	일본	67	37	13	6	7	2	2		
4	北(북)	북한	61	41	4	15		1			
5	朴(박)	성씨	35	33		2					
6	前(전)	예전	29	6	1	17	3	1		1	
7	韓(한)	한국	17	12	1	1	3				
8	車(차)	자동차	16	1	1	3	11				
9	英(영)	영국	15	2	6		4	3			
9	檢(검)	검찰	15	9		6					1
11	靑(청)	청와대	14	12		2					
11	與(여)	여당	14	14							
13	野(야)	야당	12	12							
14	銀(은)	은행, 은메달	11		1	3	6		1		
14	女(여)	여자	11	1	1	2	1	1	5		
16	軍(군)	군대	10	6		4					
16	佛(불)	프랑스	10	5	2			3			
16	新(신)	새로운	10	2		3	5				
19	亞(아)	아시아	9	2		1			6		
19	盧(노)	성씨	9	7		2					
21	獨(독)	독일	8	1	3	2	2				
21	金(김)	성씨, 금메달	8	2		2	1		3		
21	大(대)	대학, O대	8	1	1	2	2	1		1	1
24	公(공)	공사	6	2		1	3				
24	中企(중기)	중소기업	6			1	5				
24	發(발)	발하다	6	1		2	2				
27	故(고)	세상을 떠난	5			5					
27	年(년)	일년	5	2			3				
29	鄭(정)	성씨	4	4							
29	恨(한)	한	4	1		2		1			
29	重(중)	중공업	4				4				
29	賞(상)	상	4	1		3					
29	研(연)	연구소	4			2	2				1

표에는 신지 않았지만 3회 제시된 한자는 총 8개로 ‘남한’을 뜻하는

‘南(남)’, ‘법률, 헌법’의 의미로 쓰이는 ‘法(법)’, ‘현재’의 의미인 ‘現(현)’, ‘전체’라는 뜻의 ‘全(전)’, ‘취업門’ 등에 쓰인 ‘門(문)’, 성씨 ‘姜(강)’, ‘한 달에’라는 의미의 ‘月(월)’ 그리고 백화점을 나타내는 ‘百(백)’이 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南(남: 남한)	法(법: 법률)	現(현: 현재)	全(전: 전체)
門(문: 문)	姜(강: 성씨)	月(월: 달)	百(백: 백화점)

그리고 2회 제시된 한자는 총 16개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男(남: 남자)	黨(당: 정당)	無(무: 없음)
比(비: 필리핀)	死(사: 죽다)	山(산)
生(생: 가공하지 아니한)	詩(시)	阿(아: 아프리카)
安(안: 성씨)	委(위: 위원회)	印泥(인니: 인도네시아)
兆(조: 숫자)	茶(차)	許(허: 허락하다)
協(협: 협회)		

총 1회 제시된 한자 목록은 49개이며 아래와 같다.

家(가)	甲(갑)	强(강)	高(고)	官(관)	局(국)	郡(군)
機(기)	老(노)	道(도)	毒(독)	母(모)	文(문)	民(민)
反(반)	辯(변)	兵(병)	富(부)	私(사)	司(사)	産(산)
色(색)	善(선)	說(설)	勢(세)	稅(세)	數(수)	神(신)
惡(악)	案(안)	右(우)	月(월)	李(이)	伊(이)	字(자)
者(자)	錢(전)	情(정)	族(족)	罪(죄)	株(주)	鐵(철)
淸(청)	秋(추)	太(태)	行(행)	刑(형)	洪(홍)	黃(황)

이상으로 104개의 한자 목록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단어가 단음절로 되어 있으며 2음절 단어는 ‘中企’와 ‘印泥’ 둘뿐이다. 이 중 일부 단어는 일반 한국인도 그 지칭 대상을 알기 어렵거나(성 씨 ‘黃’), 단독으로

쓰였을 때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은(‘누구누구의 의견’의 의미로 쓰인 ‘辯’) 단어로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위의 선정 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단어는 무엇인지, 또한 위 목록에는 누락되었으나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단어는 무엇인지를 가감하는 절차를 거쳤다. 필수 단어로 선정된 단어와 계열 관계를 이루는 단어의 목록을 살펴보고 이 중 일상 생활에서 한자 노출이 자연스럽고 빈번한 한자 중심으로 목록을 정리하였다. 해당 분야를 아우르는 목록 선정을 위하여 개별 한자로 제시하지 않고 분야별로 묶어 한자 목록을 정리하였다.

시사 한자 목록의 첫 번째 분야는 국가명을 나타내는 한자이다.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빈도 상위 10위 안에 국가를 나타내는 한자가 6개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 실제 목록에 나타난 한자와 빠진 한자를 보충한 국가 또는 지역명 한자 목록은 아래와 같다.¹³⁾

美(미국)	中(중국)	日(일본)	韓(한국)	北(북한)
南(남한)	英(영국)	獨(독일)	佛(프랑스)	伊(이탈리아)
加(캐나다)	濠(호주)	印(인도)	比(필리핀)	臺(타이완)
蒙(몽골)	泰(태국)	印泥(인도네시아)	亞(아시아)	阿(아프리카)

이 단어 중 한자 표기와 한자음 표기 둘 다 사용되는 경우(美:미)가 대부분이나 한자로 표기되지만 이를 한글로 표기하면 어색한 경우도 일부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를 뜻하는 ‘加’는 한자 표기를 사용하지만 ‘加’의 한자음인 ‘가’를 쓰고 캐나다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필리

13) 이 목록에는 러시아가 빠져 있는데 러시아를 나타내는 ‘露’라는 한자는 사용이 거의 되지 않으며 한자가 아닌 한자음 ‘노’도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러시아’의 두음인 ‘러’의 사용이 빈번하다. 예를 들면, <러 역류 탈북자 10명 지난달 말 국내 안착> 동아일보, 2013년 9월 3일자 기사.

핀을 뜻하는 ‘比’, 대만을 뜻하는 ‘臺’ 역시 한자로 표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비’나 ‘대’로 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사용상의 특수성 또한 한자 학습 시 강조되어야 한다.

정치 분야에서도 특정 단어는 한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핵무기를 뜻하는 ‘核’이란 한자는 조사 대상 자료 중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는 시기적으로 핵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 뿐,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경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한자로 필수 한자에 포함시켰다. ‘核’은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北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정치 분야 한자 목록은 아래와 같다.

靑(청와대) 輿(여당) 野(야당) 黨(정당) 檢(검찰)
 法(법) 軍(군대) 核(핵무기)

사회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로는 大(대학), 高(고등학교), 中(중학교)를 선정하였다. 같은 계열 어휘로 초등학교를 나타내는 ‘初’가 있을 수 있겠으나 ‘初’ 단독으로 쓰여 초등학교를 나타내는 경우가 없으므로 목록에 제시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전 경력 등을 나타내는 ‘前’과 고인을 의미하는 ‘故’는 사회면 이외의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사회면에서 가장 사용이 잦아 이 분야로 제시하도록 한다.

大(대학) 高(고등학교) 中(중학교) 前(전) 故(고)

경제 용어로는 상업 기관의 약자와 경제 용어의 약자를 들 수 있다. 조사 목록에 제시된 한자 중 銀(은행), 百(백화점), 車(자동차 회사)는 빈번한 사용이 가능하나 ‘重(중공업 회사)’, ‘中企(중소기업)’은 한국어 학습자가 자주 접하는 주제나 기능과 관련된 표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필수 한자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같은 이유로 ‘公(공사)’, ‘研(연구소)’

등도 제하였다. 이 외에 道(고속도로), 株(주식), 稅(세금)은 경제 관련 기사 이해에 필수적이라 판단하여 목록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年’과 ‘月’을 들 수 있다. 매일을 뜻하는 ‘日’은 해당 의미로는 기사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필수 한자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銀(은행) 百(백화점) 車(자동차회사) 道(고속도로) 株(주식)
稅(세금) 年(년 단위) 月(월 단위)

인명을 나타내는 한자는 시기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빈도가 달라지는데 역사적 인물, 현 시대의 인물 등을 고려하여 필수 한자 선정이 필요하다. 또한 당대 정계를 움직이는 대표 인물들 예를 들어 대선 후보, 정당 대표, 각 부 장관, 지자체 대표 등이 성씨를 나타내는 한자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대에 따라 목록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인 목록은 학습자의 학습 목표나 학습 주제를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데, 한국의 정치 이해를 목적으로 할 경우 현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계 인물 목록으로 ‘朴(박근혜), 李(이명박),¹⁴⁾ 盧(노무현), 安(안철수), 文(문재인)’을 선정하였다. 이 외에 스포츠 스타들도 성씨를 한자로 표기해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대상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한자 목록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 목록에 한국인의 성씨 중 상위 순위에 해당되는 성씨인 金(김), 鄭(정), 崔(최)를 더해 총 8개 단어를 선정하였다.

이 외에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한자로는 ‘反(반), 非(비), 全(전), 無(무), 新(신), 賞(상), 大(대), 生(생), 死(사), 男(남), 女(여), 金(금)’이 있다. 이 중 ‘大’는 앞에서 대학의 의미로도 사

14) ‘이명박’은 ‘李’라는 한자 표기보다 ‘MB’로 지칭하는 경우가 잦았으나 여기에서는 그 목록 인식의 차원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용하였으나 순위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학습할 필요가 있어 목록에 넣도록 하며, ‘金’은 금메달, 금값 등의 의미와 함께 한국인의 성씨로 쓰일 수 있음을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동일 한자가 다른 영역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大’, ‘中’, ‘金’의 세 한자이다.

이상으로 선정한 시사 한자 목록은 총 58개이다. 이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한국어 교육용 시사 한자 목록

분야	선정 한자
국제	美, 中, 日, 韓, 北, 南, 英, 獨, 佛, 伊, 加, 濠, 印, 比, 臺, 蒙, 泰, 印泥, 亞, 阿 (20개)
정치	靑, 與, 野, 黨, 檢, 法, 軍, 核 (8개)
사회	大, 高, (中), 前, 故 (4개)
경제	銀, 百, 車, 道, 株, 稅, 年, 月 (8개)
일반	反, 非, 全, 無, 新, 賞, (大), 生, 死, 男, 女, 金 (11개)
인명	朴, 李, 盧, 安, 文, 鄭, 崔, (金) (7개)

4. 한국어 교육에서 시사 한자 교육을 위한 제언

이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시사 한자 목록을 선정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선정된 한자를 가르칠 때 참고해야 할 몇 가지 지침을 밝혀 둔다.

첫째, 시사 한자는 표현 어휘가 아닌 이해 어휘¹⁵⁾로 가르친다. 시사 한자를 활용하는 기능은 읽기에 국한된다. 따라서 직접 써 보게 하는 활동이나 한자를 넣어 문장을 만드는 활동 등은 불필요하다. 한자를 보고

15) 자기가 직접 쓰지는 못해도 그 의미나 용법을 알고 있는 어휘를 이해 어휘라고 하며, 수동적 어휘, 획득 어휘라고도 말한다. 말하거나 글을 지을 적에 사용이 가능한 어휘를 사용 어휘라고 하며 능동적 어휘, 발표 어휘라고도 말한다. (김광해, 1993:57)

인식할 정도의 이해 활동으로 교육 활동을 짜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사 한자 교육 항목에는 한자의 음과 뜻, 그리고 시사적으로 해석되는 의미와 주로 사용되는 주제 영역을 포함한다. 한자의 대표적인 의미가 신문 기사에 사용된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특히 유의하여 제시해야 한다. 한자권, 비한자권 학습자를 통틀어 이해에 오류를 보인 한자는 ‘靑’, ‘銀’, ‘百’ 등이다.

셋째, 한자를 제시할 때는 개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관련 영역 또는 주제로 묶어 문맥 속에서 어휘를 배우도록 한다. 한자를 낱자로 제시하는 경우 일시적인 이해에 그치고 장기적인 학습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치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한자,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는 한자 등으로 어휘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시하고 학습하게 한다.

넷째, 시의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한자 목록을 수정하거나 한자의 의미 변화를 확인한다. 시사 한자의 특성상 당대의 가장 화제가 되는 사건 중심으로 한자가 제시되기도 하며 지칭하는 대상이 달라지거나 내포된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한 번 선정된 한자 목록을 고정화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목록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정된 어휘의 분량 등을 고려했을 때 특정 수업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한자 목록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목록과 비교할 때 현격하게 적은 분량이다. 약 50여 개의 어휘 목록은 어휘 학습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연습 단계와 유의미적 활동 등을 고루 편성한다면 한 번의 수업에서 충분히 학습될 수 있는 분량이다.¹⁶⁾

16) 선정된 50여 개의 목록을 비한자문화권 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수업한 결과, 수업 전 평균 6개의 한자를 구별하고 음을 말할 수 있었고, 두 시간의 수업 후에는 평균 43개의 한자를 구별하고 음을 말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에게 필수적인 어휘 항목으로 시사 한자가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교육 대상으로 삼는 한자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 작업은 일차적으로는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에 노출된 한자를 추출하여 목록화한 후 어휘의 계열 관계와 실제적 사용 상황을 고려하여 목록을 수정하는 이차 단계를 거쳤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한자 목록은 여섯 개의 영역에 걸쳐 총 58개로 나타났다. 특히 선정된 한자 중 일부는 일반적인 한자 교육에서 제시하는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 차이점을 강조하여 교육한다면 이해 교육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한 달 분량의 한 종의 신문에 국한되어 자료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휘력 확장에 목표를 두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한자 자체를 학습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교육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의 부족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하되 이때에는 정기적인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해석이 반영되어 자료의 객관성과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참고 문헌>

- 강현화(2001). 한국어교육용 기초 한자어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어휘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12-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3쪽~70쪽.
- 고영근(197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언어교육> 6-1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79쪽~117쪽.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성중(2013). 한국어교육에서의 한자 어휘 교육을 위한 성취 기준 개발, <한자 한문교육> 32호,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59쪽~79쪽.
- 김유정(2013). 한자음 교수를 통한 한자어 교육 연구: 일본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문연구> 67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73쪽~406쪽.
- 김정남(2005). 한국어교육에서 한자교육의 위상과 방향, <어문연구> 33-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99쪽~424쪽.
- 김정숙(1992).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김중섭(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자교육 연구, <어문연구> 25-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5쪽~113쪽.
- 김지영(2004). 한국어 어휘 교육 항목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15-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3쪽~114쪽.
- 김지형(2003a).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기초한자의 선정: 초·중급 한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1-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77쪽~402쪽.
- _____ (2003b).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 교수법: 비한자권 외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27호, 국제어문학회. 343쪽~368쪽.
- 마키노 미키(2012). 『일본인을 위한 효과적인 한자 어휘 교육 연구: 한일 한자어 음성대응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금현(2003).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한자어 학습 방안, <이중언어학> 23호, 이중언어학회. 13쪽~41쪽.
- 방혜숙(2007). 영어권 학습자들의 한자 학습에 대한 요구와 전략 분석 연구, <이중언어학> 34호, 이중언어학회. 185쪽~220쪽.
- 손연자(1984). 비한문 문화권의 외국인에 대한 한자 교육 방법론 소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9-1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81쪽~101쪽.
- 심재기 외(2011).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도서출판 지식과 교양.
- 유홍주(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자 교육 방안: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4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83쪽~199쪽.
- 이영희(2007a).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자 교육의 현황과 방향, <새국어교육> 7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69쪽~293쪽.
- _____ (2008).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충우(2006). 『좋은 국어 어휘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주)교학사.
- 장석진(197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교과편찬에 대한 기초 연구, <언어교육> 6-2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69쪽~107쪽.
- 장일결(2013). 『비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기초 한자의 선정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승혜(1998). 『외국인을 위한 국어 한자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남호 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국립국어원.
-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서울:박이정.
- 진태하(1995). 신문의 기사와 한자 문제, <새국어생활> 5-4호. 국립국어원. 44쪽~64쪽.
- 최주열(1994). 한자 교육 방법에 대한 고찰: 외국인에 대한 한자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말 교육> 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5쪽~174쪽.
- 한재영(2003b).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한자 교육을 위한 기초적 연구: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문연구> 31-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57쪽~586쪽.
- 허 철(2010).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現代國語使用頻度調査) 1,2』를 통해 본 한자어(漢字語)의 비중 및 한자(漢字)의 활용도(活用度) 조사, <한문교육연구>, 34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21쪽~244쪽.
- Nation, I.S.P.(201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김창구 역(2012). 『I.S.P Nation의 외국어 어휘의 교수와 학습』. 서울: 소통.

송금숙(Song Keumsook)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전화번호: 02-3290-2433

전자우편: colaqud@korea.ac.kr

접수일자: 2013년 12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4년 1월 22일

게재확정: 2014년 2월 5일